2022년 4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월 28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중소벤처기업부 **보 도 자 료**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• 문의 : 투자회수관리과 이준희 과장(044-204-7720), 최형민 사무관(7722), 윤원민 주무관(7727)

1분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역대 최대실적 이어가

- 1분기 투자, 펀드 나란히 2조원 돌파 -

□ **(투자)** ’22년 1분기 투자는 **종전 역대 최대**인 **전년 동기**(1조 3,187억원) **대비 57.9% 증가**(+7,640억원)하면서 **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2조 827억원**

○ ’22년 1분기 벤처투자 **상위 3개 업종**인 **정보통신기술(ICT)서비스**(7,042억원), **유통·서비스**(4,291억원), **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**(4,051억원)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**73.9%가 집중**

○ **100억원 이상**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전년 동기(24개사) 대비 **2배 이상 증가**한 **52개사**로 1분기 **역대 최대**

□ **(펀드)** 1분기 벤처펀드도 **종전 역대 최대**인 **전년 동기**(1조 5,763억원) 대비 **62.8% 증가**(+9,905억원)하면서 **2조 5,668억원**이 결성

○ 이 중 **민간 출자**는 **약 1조원 증가**(+90.9%, +9,964억원)한 **2조 927억원**으로 **민간 출자 비중**은 전년 동기 대비 **12.0%p 증가한 81.5%**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권칠승, 이하 중기부)는 ’22년 1분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발표했다.

벤처투자 동향

(1) 총괄 :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2조 827억원(전년 동기 대비 +57.9%)

’22년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**2조 827억원**으로 집계됐다. 이는 **종전 역대 최대인 ’21년 1분기**(1조 3,187억원) **대비 57.9% 증가**한(+7,640억원) 실적이며 **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**했다.

또한 올해 1분기 **투자 건수**(1,402건)와 **건당 투자**(14.9억원), **피투자기업 수**(688개사), **기업당 투자**(30.3억원) 역시 **각각 1분기 역대 최대**로 확인되면서 벤처투자 열기가 올해에도 계속됐다.

< '18 ~ '22년 1분기 벤처투자 현황 (단위 : 억원, %, 건, 개사) >

구 분		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1분기	투자금액		6,377	7,789	7,732	13,187	20,827
	전년 대비	증감	-	+1,412	△57	+5,455	+7,640
		증감률	-	+22.1	△0.7	+70.6	+57.9
	투자 건수		608	774	719	1,054	1,402
	건당 투자		10.5	10.1	10.8	12.5	14.9
	피투자기업 수		357	418	405	604	688
	기업당 투자		17.9	18.6	19.1	21.8	30.3

월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, **'22년 1~3월** 모두 **종전 최대실적**인 **'21년** 1~3월 투자를 **경신**하면서, **해당 월 역대 최대실적**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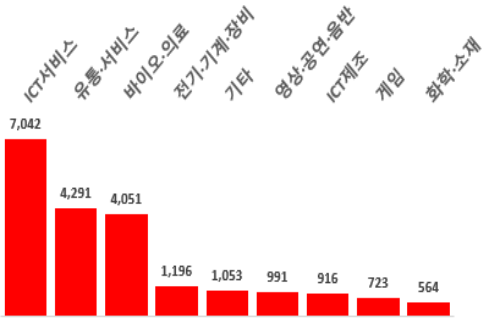
< '20 ~ '22년 1분기 월별 벤처투자 비교 (단위 : 억원, %) >

구 분	'20년	'21년	'20년 대비		'22년	'21년 대비	
			증감	증감률		증감	증감률
1월	2,462	3,458	+996	+40.5	6,899	+3,441	+99.5
2월	2,103	3,497	+1,394	+66.3	5,997	+2,500	+71.5
3월	3,167	6,232	+3,065	+96.8	7,931	+1,699	+27.3
합 계	**7,732**	**13,187**	**+5,455**	**+70.6**	**20,827**	**+7,640**	**+57.9**

(2) 업종 : 작년 1분기 대비 모든 업종 투자가 늘었고, 투자 주력업종인 정보통신기술(ICT)서비스, 유통·서비스, 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3/4 가량이 몰려

올해 1분기 벤처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, **모든 업종**에서 전년 동기 대비 **투자가 증가**했다.

특히 최근 주력 투자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**정보통신기술(ICT)서비스(7,042억원), 유통·서비스(4,291억원), 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(4,051억원)**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약 **73.9%**(1조 5,384억원)가 집중됐다.



〈'22.1Q 업종별 벤처 투자금액(억원)〉

< 업종별 '21년, '22년 1분기 벤처투자 비교 (단위 : 억원, %) >

업종	'21.1Q	'22.1Q	증감	증감률
정보통신기술(ICT) 서비스	3,648	7,042	+3,394	+93.0
유통·서비스	2,585	4,291	+1,706	+66.0
생명공학(바이오)·의료	3,648	4,051	+403	+11.0
전기·기계·장비	793	1,196	+403	+50.8
기타	749	1,053	+304	+40.6

업종	'21.1Q	'22.1Q	증감	증감률
영상·공연·음반	567	991	+424	+74.8
정보통신기술(ICT) 제조	416	916	+500	+120.2
게임	368	723	+355	+96.5
화학·소재	413	564	+151	+36.6

(3) 대형투자 :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은 1분기 역대 최다인 52개사

1분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**'18년~'20년 10개사 수준**에서 **'21년**(24개사), **'22년 각각** 전년 동기 대비 **2배 이상 늘어나면서,**

'22년 1분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은 **52개사**로 벌써 **작년**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(157개사)의 약 **1/3**에 해당했다.



〈1분기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수(개사)〉

펀드결성 동향

(1) 총괄: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인 2조 5,668억원(전년 동기 대비 +62.8%)

'22년 1분기는 **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93개 펀드**가 **2조 5,668억원**을 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**62.8%**(+9,905억원) **늘어난 수치**로 **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.**

< '18 ~ '22년 1분기 펀드결성 현황 (단위 : 억원, %, 개) >

구 분		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1분기	결성금액		10,490	6,605	5,078	15,763	25,668
	전년 대비	증감	-	△3,885	△1,527	+10,685	+9,905
		증감률	-	△37.0	△23.1	+210.4	+62.8
	결성펀드 수		26	34	20	53	93
	펀드당 결성금액		403.5	194.3	253.9	297.4	276.0

이 중 **절반 이상**은 **1.5조원** 가까이(1조 4,658억원) **결성된 1월달**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1월달 결성 펀드들은 이미 작년에 결성이 약정된 펀드들로, 1월달에 조합결성을 마무리한 경우이다.

< '21년, '22년 1분기 월별 신규 펀드결성 현황 (단위 : 억원, %) >

구 분	'21년	'22년	증감	증감률
1월	11,174	14,658	+3,484	+31.2
2월	2,696	4,799	+2,103	+78.0
3월	1,893	6,211	+4,318	+228.1
합 계	**15,763**	**25,668**	**+9,905**	**+62.8**

(2) 출자자 : 정책금융 출자 4,741억원(전년 동기 대비 △1.2%, △59억원)
민간부문 출자 2조 927억원(전년 동기 대비 +90.9%, +9,964억원)

'22년 1분기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, 모태펀드 등 **정책금융 출자**는 **4,741억원(18.5%)으로** 전년 동기 대비 **약 59억원 감소(△1.2%)**한 반면, **민간부문 출자는** 전년 동기 대비 **약 9,964억원 늘어난(+90.9%) 2조 927억원(81.5%)**으로 파악됐다.

먼저 **정책금융** 출자를 살펴보면, '22년 1분기 **모태펀드**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**1,359억원이 감소한(△51.5%) 1,280억원**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금년에 1차 선정(3.4일, 자펀드 1.3조원 규모)되었거나, 2차 심사 중(5월 중 선정 예정, 자펀드 1.6조원 이상)인 모태자펀드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산업은행,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**기타정책기관**은 전년 동기 대비 299**억원 증가한(+29.6%) 1,310억원**, **성장금융**은 전년 동기 대비 **1,001억원 증가한 (+87.0%) 2,151억원**을 출자했다.

민간부문 출자에서는 민간 시중은행 등의 출자도 급증하며 **금융기관 출자**는 전년 동기 대비 **3배 이상(+224.7%, +5,105억원) 급증**한 **7,377억원**으로 확인됐다.

법인 출자의 경우 작년에 크게 늘어난 법인의 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 기조가 올해 1분기에는 더욱 확대되면서, 전년 동기 대비 **1,353억원 늘어난(+58.3%) 3,675억원**으로 나타났다.

'22년 1분기 개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**3배 이상 증가**한(+276.8%, +3,897억원) **5,305억원**으로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출자 중 **20.7%를 차지**했다.

이처럼 최근에 개인들도 벤처투자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개인의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벤처펀드에도 많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< '18년~'22년 1분기 신규결성 펀드 출자자 현황 (단위 : 억원, %, %p) >

구 분			'18년 1분기	'19년 1분기	'20년 1분기	'21년 1분기	'22년 1분기	'21년 동기 대비 증감	'21년 동기 대비 증감률
정책금융	모태펀드	금 액	2,063	1,730	900	2,639	1,280	△1,359	△51.5
		비 중	19.7	26.2	17.7	16.7	5.0	△11.7	-
	기타정책기관 (산은, 지자체 등)	금 액	1,325	85	190	1,011	1,310	+299	+29.6
		비 중	12.6	1.3	3.7	6.4	5.1	△1.3	-
	성장금융	금 액	300	175	315	1,150	2,151	+1,001	+87.0
		비 중	2.9	2.6	6.2	7.3	8.4	+1.1	-
	소 계	**금 액**	**3,688**	**1,990**	**1,405**	**4,800**	**4,741**	**△59**	**△1.2**
		비 중	**35.2**	**30.1**	**27.7**	**30.5**	**18.5**	**△12.0**	-
민간출자	개인	금 액	80	1,566	450	1,408	5,305	+3,897	+276.8
		비 중	0.8	23.7	8.9	8.9	20.7	+11.8	-
	법인	금 액	549	1,778	800	2,322	3,675	+1,353	+58.3
		비 중	5.2	26.9	15.8	14.7	14.3	△0.4	-
	금융기관 (산은제외)	금 액	2,153	550	310	2,272	7,377	+5,105	+224.7
		비 중	20.5	8.3	6.1	14.4	28.7	+14.3	-
	연금/공제회	금 액	2,750	-	950	2,370	975	△1,395	△58.9
		비 중	26.2	-	18.7	15.0	3.8	△11.2	-
	VC	금 액	1,090	586	637	1,845	2,843	+998	+54.1
		비 중	10.4	8.9	12.5	11.7	11.1	△0.6	-
	기타단체, 외국인	금 액	180	135	526	746	752	+6	+0.8
		비 중	1.7	2.0	10.4	4.7	2.9	△1.8	-
	소 계	**금 액**	**6,802**	**4,615**	**3,673**	**10,963**	**20,927**	**+9,964**	**+90.9**
		비 중	**64.8**	**69.9**	**72.3**	**69.5**	**81.5**	**+12.0**	-
합 계		**금 액**	**10,490**	**6,605**	**5,078**	**15,763**	**25,668**	**+9,905**	**+62.8**
		비 중	**100.0**	**100.0**	**100.0**	**100.0**	**100.0**	-	-

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"올해 1분기에도 투자와 펀드 결성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,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"이라면서도

"투자생태계가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, 벤처투자가 장기투자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

※ **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'22년 1분기 벤처투자, 벤처펀드 실적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통계로,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.**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최형민 사무관(☎ 044-204-7722) 또는 윤원민 주무관(77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